

“소설은 삶을 덜 허무하게 해주는 약물”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이연초 작가 첫 소설집 ‘그 여자, 진선미’ 발간

신춘문예 당선작 ‘천화’ 등 8편 수록...썩인 생 의지 그려
“국어교사였던 한승원 작가 칭찬이 나를 소설가 만들어”

누군가의 말 한 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창작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러내야 하는 작업이어서 인정은 큰 힘이 된다. 최근에 소설집 ‘그 여자, 진선미’ (문학들)을 발간한 이연초 작가. 광주일보 신춘문예(2015년) 출신이기도 한 이 작가는 “동신여중 3때 첫 소설이 교재에 실렸는데, 당시 국어 교사였던 한승원 선생님의 칭찬이 큰 격려가 됐다”고 한다.

이 작가는 “그 때부터 막연하게 소설가의 꿈을 가졌던 것 같다”며 “선생님의 한마디가 한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 스승에 그 제자였던 모양이다. 70년대 후반만 해도 한승원 작가는 교사생활을 하면서 한창 창작에 열정을 지필 때였다. 한 작가의 눈에 글 잘 쓰는 제자들은 남다르게 보였을 것 같다.

이연초 작가는 평소에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다. 간혹 문학 행사장에서 만날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소설 발간 소식도 본인인 아닌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을 정도다.

“작년에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에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천화’ (遷化)를 읽고 누군가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댓글을 달아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창작한 작품을 볼 줄도 몰랐었는데 그

댓글을 계기로 작가로서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이 작가는 소설집을 건네며 많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낮췄다. ‘검손이 미덕이 아닌 시대’에, 작가는 여전히 겸양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면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정면대결을 회피하다가 책으로 묶어내는 결기에서 보듯, 작가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을 거였다.

이번 작품집은 2011년부터 발표된 소설들을 모았다. “엄밀히 말하면 10년이 걸렸다”며 “아니 어쩌면 제 나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창작을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장르의 특성상 소설은 일단 책상에 앉아 써야만 진척이 나간다.

오랜 시간을 두고 쓴 단편 모음이라 딱히 하나의 주제로 집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작가는 “김주선 평론가의 말대로 썩인 생, 그리고 그 생의 의지를 제 나름대로 그려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많은 소설가들이 그렇듯 주류보다는 비주류, 삶의 중심보다는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요. 어찌 저 저



는 그들이 제 자신 같아요. 더 친밀감,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나아가자고, 살아가자고 말이지요.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구요.”

이번 작품집에는 표제작 ‘그 여자, 진선미’를 비롯해 ‘어떤 하루’, ‘마지막 담배’, ‘미망’ 등 모두 8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그 여자, 진선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가 나이 들어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이야기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지게 되고 여자는 충격을 받는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일주일의 지난 뒤에 실종신고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소설에서 작가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허덕인다. 그러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화해하려 애쓴다.

그렇다면 이 작가는 언제부터 소설을 썼을까. 문정시절 습작기가 궁금했다. “미지근한 성격 탓에 오래도록 문학의 주변부를 맴돌았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

그녀는 “직장과 결혼 등 현실에 매몰돼 문학과 맞장을 뜨지 못하고 서성거렸지만 ‘써야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놓지 않았다”며 웃었다.

그러나 문학이란 써야지, 써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쓰는 노력이 있어야 문학의 자장에서 밀려나지 않는다. 그녀는 장황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라고 대학(전남대 영문과) 졸업 후 10여 년 정도를 장흥 대덕중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조용하면서도 착실한 성품에서 보듯 시계추와 같은 정해진 생활을 했겠지만, 내면에선 소설에 대한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모양이다.

“마흔 중반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가회의에서 진행되는 창작수업과 문순태 선생님의 생오지 창작수업을 1년씩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회의를 이기기 위해 함께 창작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번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는 속도를 낼 것이다. 독자들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도 하다. 작품은 결국 독자에 의해 읽힘으로써 완성되는 텍스트이므로.

“소설은 제게 삶을 덜 허무하게 해주는 약물 같은 것이요. 그리고 삶에서 쫓겨날 때, 깰 수 있는 밑살 같은 것, 그 밑살에서 다시 삶과 분투할 공력을 찾거든요.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자각시켜 주는 고마운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을 마지막 공연

27일 황금동 광주아트홀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사진)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황금동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이 광주문화재단 2018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에 선정돼 열리는 이번 공연은 최덕식 빛소리오페라단 단장이 총감독을 맡고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대본과 연출, 허걸재

한국창작작곡가협회 회장이 작곡을 담당했다.

1950-90년대 광주 학동을 배경으로 한 ‘학동엄마’는 희생과 헌신으로 9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그렸다. 윤희정, 장호영, 한아름, 박정희, 조현서, 김용덕, 김승지 등 중견 성악가들이 출연하고 장오영 극단 정경다리 대표가 조연출을 맡았다. 전석 2만원 (선예매 1만원). 문의 062-227-744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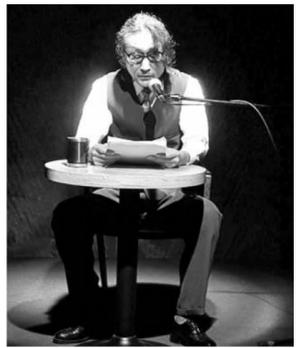
소설 ‘오발탄’ 낭독극으로 만나다

26~28일 궁동 예린소극장

극단 예린소극장이 35번째 공연 ‘낭독극 소설, 눈으로 보다’를 오는 26-28일 오후 5시 30분 광주시 동구 궁동 예린소극장에서 연다.

한 명의 화자만 무대에 등장하는 이번 낭독극의 작품은 소설 ‘오발탄’이다. 6·25전쟁 뒤 분단의 상처를 그린 이법선의 단편소설 ‘오발탄’을 40분 분량으로 압축해 읽는다. 이 작품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50년대 한 셀러리맨의 방향을 그렸다.

낭독에는 연극 인생 39년을 맞은 극단 예린 대표 윤여송(58·사진)씨가 나선다. 윤씨는 어떠한 몸짓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대사와 소리만을 내며 극을 전개하는 형식을 택했다. 라디오 스튜디오처럼 꾸민 무대에서 그는 낭독뿐만 아니라 배경음과 효과음을 담당해 1인2역을 할



예정이다. 낭독극 뒤에는 관객들과 작품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이번 공연에는 1만원의 나눔비용이 있다. 문의 010-4123-6080. /백희준 기자 bhj@

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27일 책문화행사

“우리가 꿈꾸는 마을, 책은 마음을 나누는 좋은 벗이 됩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책문화행사를 펼친다.

오는 27일 오전 11시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마을’ 주제로 광주시청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에서부터 청장년층, 노년층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리다.

책 나눔장터, 동화낭독, 책놀이만화방, 책돌이사진관, 옛이야기사랑방 등 책과 관련된 부스를 비롯 사방놀이, 투호놀이, 고무줄, 공기놀이 등 광장 놀이도 개설된다. 특히 책놀이영화관-2D상영관에서는 모두 5회에 걸쳐 ‘눈물바다’, ‘여우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 상영된다. 문의 062-266-7279, 010-2684-20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곡·재즈부터 대중가요까지...아름다운 화음 선사

광주합창연합회 ‘광주합창제’
26~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지역 합창단들이 아름다운 화음의 축제를 연다.

광주합창연합회(회장 박호진)는 오는 26-27일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11회 광주합창제’를 연다. 이번 합창제에는 광주 17개팀 600여 명이 참여해 가곡, 재즈,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첫날 오후 7시에는 원주시립합창단이 축하 무대를 연다. 정남규의 지휘로 에드워드 엘가의 ‘영원한 빛’, 올라 아일로의 ‘피닉스(불사조)’ 등의 교회 성악곡을 부르고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생일 마드리갈’로 무대를 꾸민다. 또 국현의 ‘새아



지난해 열린 ‘10회 광주합창제’ 공연 모습.

새아’, 이현철의 ‘오 음악이여’, 배동진의 ‘바람이 오면’이 이어지고 존 루터의 ‘종달새’ 등 재즈 음악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다음 날 오후 2시에는 경산문화원합리오페코러스를 초청해 영호남 친목을 다진다. 김문영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무대에

는 박지훈의 ‘진달래꽃’,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상우의 ‘새아새아 파랑새아’를 선보인다.

본공연 1부에서는 광주지역 합창단들이 기량을 뽐낸다. 광주동구합창단이 ‘윈스 어폰 어 드림’으로 호흡을 맞추고 서구여

성합창단 ‘바람이 전하는 노래’, 광산구립합창단 ‘도라지꽃’,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칸타테 도미노’로 분위기를 돋운다. 같은 날 오후 7시에 열리는 2부에서는 사랑의파합창단 ‘도라지꽃’, 아무르합창단 ‘사랑하는 마음’, 광주CBS여성합창단 ‘바람이 분다’, 광주아비지합창단 ‘향수’, 광주남구합창단 ‘산유화’, 북구합창단 ‘날 좀 보소’로 화음을 선사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윤영문의 지휘와 김자영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박정선의 ‘홀가시 만들며’ 등을 부르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광주극동방송여성합창단과 광주영여방송소년소녀합창단, 북구시니어합창단 등 7개 단체는 광주시립미술관 앞 잔디마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깜짝 무대를 열어 ‘아리랑’과 ‘우정의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어울렸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10-7933-898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